

# KDC의 조합식 분류체계 분석

## Analysis of Faceted Schemes of Korean Decimal Classification

정해성(Hae-Sung Jung)\*

### 〈 목 차 〉

- |                       |                    |
|-----------------------|--------------------|
| I. 서론                 | 3. 보조표의 패시를 본표의 특정 |
| II. 조합식 구조에 대한 논의     | 류에만 한정시켜 합성시키는 구조  |
| 1. 조합식 구조             | 4. 본표에 전개된 기호를 패시로 |
| 2. 조합식 체계의 특징         | 사용하여 합성하는 구조       |
| 3. 십진식 체계가 채택하고 있는 조합 | 5. 특정 기호를 패시기로     |
| III. KDC의 패시 구조와 개선방안 | 사용하는 구조            |
| 1. 특정 패시를 본표상의 특정 류나  | 6. 개선방안            |
| 강에 고정시킨 구조            | IV. 결 론            |
| 2. 보조표의 패시를 분류표전체에    |                    |
| 합성하는 구조               |                    |

### 초 록

이 연구는 KDC의 패시 구조를 분석하여, 앞으로 반영할 수 있는 조합식 분류체계를 제안하는 것이다. KDC는 십진식 체계들이 사용하는 조합식 구조를 수용하고 있으나, 앞으로 표준구분의 적용을 분명하게 하고, "기본기호 ~에 ~구분표의 기호~를 사용하여 ~구분한다"와 같은 지시를 사용하여 전개할 수 있도록 하고, 조표의 활용 방법과 내용을 수정 확장하고, 내부 보조표를 마련하여 특정 류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구조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주제어: 보조표, 십진 체계, 조표, 패시, 패시 구조, 패시기호, 한국십진분류법

### ABSTRACT

This study is to analyze and suggest the KDC's facet structure. KDC is using the Decimal Classification's facet structure. New suggestions are : Clearly use standard subdivisions and add instruction like "Add to base number ~notation ~from table ~"; auxiliary tables contents are need to revise and expand ; to make a add table found in schedules and provide numbers to be added to designated schedules numbers are necessary.

Key Words : Auxiliary Table, Decimal Classification, Facet, Facet Structure, Korean Decimal Classification, KDC, Mnemonics

\* 대구가톨릭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도서관학과 교수(hschung@cu.ac.kr)  
• 접수일: 2005년 11월 24일 • 최초심사일: 2005년 11월 25일 • 최종심사일: 2005년 12월 5일

## I. 서론

분류의 원리는 유사한 자료를 동일한 위치에 모을 수 있어야 하고 핵심(개성), 재료(소재) 에너지, 공간과 시간과 같은 범주들에 대해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어야 하고, 열거되는 주제는 상호 배타적이어야 하며, 분류체계의 무한한 전개 능력과 변화를 보여줄 수 있는 포용력이 있어야 하고 각 주제의 배열이 일관성 있는 순서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하는<sup>1)</sup> 바와 같이 분류체계는 현존하는 그리고 앞으로 생겨날 것이 예상되는 모든 형태의 주제를 기술하고 체계화 할 수 있어야 한다.

분류표는 용어와 주제, 또는 개념간의 관계를 기호로 제시한 체계표이다.<sup>2)</sup> 서지분류의 방법에서 자료를 서가 상에 체계적으로 구분 배열하고, 주제에 따라 자료를 검색할 수 있는 서가 분류체계가 나오면서 대부분의 현대 분류표들은 전체 지식을 주류로 구분하고 각 주류는 다시 핵심(개성), 재료, 에너지라는 세 개의 독자적인 범주로 구분되며, 각 주류마다 이들 범주의 하위 개념을 상이하게 전개시키고 각 하위 개념들은 패시이라는 개념 조각으로 구분되어 조합공식에 따라 용어와 주제, 개념 간을 기호로 표시하는 분류체계로 발전되고 있다.

분류체계에 패시 개념을 사용하기 시작한 것은 18세기에 불란서의 콩도르세(Condorcet 1743-1794)로서 그는 당시의 학문분야에 관련된 내용을 분석하는데 5가지의 범주를 사용한 체계에 패시 개념을 도입하였으며,<sup>3)</sup> 이를 이론적으로 자료 분류에 접목시켜 1933년 랑가나단이 콜론분류표(Colon Classification: CC)에서 패시 구조를 사용한 이후 1960년대 이후부터는 미국국회도서관 분류표(Library of Congress Classification)를 제외하고 모든 분류표들이 부분적으로 또는 전체적으로 패시 구조로 재편되고 있으며, 미국국회도서관의 주제명표(Library of Congress Subject Headings)의 세목도 패시 구조로 변화되고 있다.<sup>4)</sup>

한국십진분류법(이하 KDC로 칭함)은 주류 서열은 DDC에 준거하고, 조기성을 최대한 활용하여 이해와 기억을 용이하게 한다<sup>5)</sup>는 방침에 따라 1964년에 초판을 발행한 이후 3회<sup>6)</sup>에 걸친 개정 과정에서 역사적 발전과정을 통하여 얻어진 많은 원칙들이 그대로 남아 있고, 아울러 DDC의 특성

1) Mildred Harlow Downing, *Introduction to cataloging and classification* (Jefferson, N.C. : McFarland, 1992) p.89.

2) 김태수, *분류의 이해* (서울: 문헌정보처리연구회, 2000), p.205.

3) Magda Whitrow, "Historical Studies in Documentation : an eighteen-century Faceted Classification system," *Journal of Documentation*, Vol.39 (1983), pp.88-94.

4) Arlene G. Taylor, *Wynar's introduction to cataloging and classification*, Rev. 9th ed.(Westport, CO : Libraries Unlimited, 1992) p.322.  
Jean Aitchison and Alan Gilchrist *Thesaurus Construction: a Practical Manual*, 2nd ed.(London: Aslib, 1987) p.57.

5) 韓國圖書館協會, 韓國圖書館協會 60年史 (서울: 韓國圖書館協會, 2005) p.98.

6) 수정판은 1966년, 3판은 1980년, 4판은 1996년에 발행됨

과 여러 면에서 공통점을 갖고 있다<sup>7)</sup>고 하고 있으나 DDC 편집정책위원회에서 DDC 20판(1989)의 음악류(780)를 개정할 때 사용하기 시작한 폐식 구조의 체계가 완전히 반영되지 않은 실정이며, KDC에 대한 국내의 연구는 주로 각 류의 수정 전개방안을 제시한 것<sup>8)</sup>과 분류표의 체제에 대한 연구<sup>9)</sup>와 그리고 분류표를 현장에서 사용하는 문제에 대한 연구<sup>10)</sup> 등이 있으나 조합식 분류체계로 전환을 시도하는 연구는 아직 없는 상태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조합식 분류체계에 대한 일반적인 이론과 KDC와 같은 십진식 분류법에서 채택하고 있는 조합의 방법과 KDC 4판에서 볼 수 있는 폐식 구조를 검토해서 앞으로 KDC를 개정할 때 반영할 수 있는 조합식의 방법(폐식 구조)을 제안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 II. 조합식 구조에 대한 논의

### 1. 조합식 구조

일반적으로 자료분류표의 정의는 사물이나 현상, 개념 등을 유사한 것은 모으고 상이한 것은 구별하여 체계화하고, 그 결과 분류된 사상의 명칭이 체계적으로 배열된 표<sup>11)</sup>로 자료분류는 이러한

- 
- 7) 오동근, 배영환, 여지숙 공저, KDC의 이해(대구: 태일사 2002), p.29.
- 8) 한경신, “한국십진분류법 제4판 음악분야 전개상의 제 문제,”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vol.30, no.1(1999).  
박옥화, “한국십진분류법 제4판 철학류의 분석,” 한국문헌정보학회지, vol.31, no.3(1997).  
이창수, “UDC 지리 전기 역사류의 특성과 KDC에서의 적용 방안,”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vol.34, no.3.  
한경신, “한국 음악자료 분류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vol.32, no.2(1998).  
권영규, “한국십진분류법(KDC)의 한의학 분류에 대한 소고,” 東西醫學, vol.13, no.3(1988).  
윤순섭, “한국십진분류법(KDC) 제4판 중 610 건축술 부분의: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설계체계, vol.17, no.2(2001).  
이영란, “四分法과 KDC의 比較” 圖書館學論集 vol.1, no.1(1987).  
유경숙, “KDC 4판(1996)상의 외국인명, 지명 및 외래어의 한글표기 문제,”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vol.30, no.4(1999).  
김용성, “韓國十進分類法 第4版에서의 數學, 物理學, 化學, 天文學, 地球科學, 土木工程, 機械工學 分野의 展開” 인문과학연구논총, vol.15(1996).
- 9) 김자후, “KDC(한국십진분류법) 4판에 대한 제언,”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vol.27(1997).  
丁海晁, “韓國十進分類法의 補助表에 관한 연구,” 연구논문집(효성여자대학교), vol.45, no.1(1992).  
배영환, 오동근, “한국십진분류법 우선순위표 설정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vol.33, no.2(2002).  
김정현, 김연례, “학교도서관을 위한 한국십진분류법 분류항목 수정전개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Vol.37, no.3(2003).  
김정현, 문지현, “한국십진분류법 농학류의 분류기호 수정전개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Vol.32, no.1(2001).  
김정현, “학교도서관을 위한 KDC 분류체계에 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vol.35, no.4(2004).
- 10) 윤희운, “공공도서관 분류오류의 실증적 분석과 대안,”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vol.34, no.1(2003).
- 11) 사공철, 등편, 문헌정보학 용어사전(서울: 한국도서관협회, 1996), p.168.

표를 통해 개념을 구체적으로 조직하고 있다.

그런데 이 체계표를 조직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귀납적인 방법으로 공통의 특성을 지닌 개개의 사물이나 개념을 유사성에 따라 조직하여 점진적으로 모든 개체를 포괄한 완전한 체계를 조직하는 방법이며 다른 하나는 연역적 방법으로서 완전한 체계를 전제한 다음 몇 가지 기준으로 구분하여 특정한 개체에 이르는 방법이다. 이때 개개의 분화단계를 범주라 하고 이를 서열화 한 것을 계층이라고 한다.<sup>12)</sup> 따라서 조합식 체계는 후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합식 체계의 기본 구조는 모든 유형의 주제를 분류표에 일일이 열거하는 대신, 지식의 각 분야를 어떤 분류 특성을 기초로 하여 패킷으로 불리는 기본 요소로 구분하고 이를 합성하기 위한 공통 구분표와 특수 구분표만을 작성하여 기본주제와 공통구분표 및 특수구분표의 기호들을 결합하여 합성주제나 복합주제를 구성하게 된다. 조합식 분류표는 분류의 연속적인 과정에서 일어나는 분석과 합성이라는 과정을 중시하여 분석 합성형 분류표라고도 한다.<sup>13)</sup>

조합식 분류체계는 분석하고 조합하는 개념을 바탕으로 분석-합성의 순으로 접근한다. 즉 어린이들이 사용하는 장난감 플라스틱 집짓기가 색과 모양에 따라 분리되었다가 새로운 형태의 구조물로 형성되는 것과 같이 각 주제들은 분류체계의 구성자에 의해 분석하는 과정을 거쳐 주제의 구성요소나 패킷으로 범주화되고 각각의 패킷들은 패킷 공식에 의해 합성하여 분류기호로 표현된다.<sup>14)</sup>

조합식 분류체계의 아이디어는 18세기에 불란서의 콩도르세가 학문 분야의 목표와 사실에 대한 정보 조직을 위하여 패킷 구조를 사용한다는 지적도 있으나, 도서관의 분류체계로는 1930년대에 랑가나단에 의해 체계화되었다고 할 수 있으며, 이 조합식 분류체계와 이론은 패킷 구조에 관련된 원칙을 강력하고도 영향력 있게 적용하여 주제 분석의 기초로 사용되고 있다.<sup>15)</sup>

## 2. 조합식 분류체계의 특징

조합식 분류표가 가지는 장점을 김태수<sup>16)</sup>는 조합식 분류표는 융통성을 가짐으로서 새로운 주제가 출현할 때 쉽게 대처할 수 있다. 즉 전통적인 체계분류법보다 개념을 자유롭게 결합함으로써 다양한 주제를 특징하게 표현할 수 있어, 지식의 변화를 쉽게 수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새로운 주제라는 것도 이미 표현된 기본 개념을 새롭게 조합함으로써 대부분 표현이 가능하기 때

12) 상계서.

13) S. R. Ranganathan, *Colon Classification*. 7th ed.(Bangalore : Sarada Ranganathan Endowment for Library Science, 1987), p.8.

14) S. R. Ranganathan, *Element of library classification*. (Bangalore : Sarada Ranganathan Endowment for Library Science, 1962), p.65-66.

15) Lois Mai Chan, p.A. Richmond and E. Svenonius ed., *Theory of Subject Analysis : An Introduction*. 2nd ed.(New York: McGraw-Hill, 1985) pp.85-88.

16) 김태수, 전계서, p.120.

문이다.

조합식 분류체계는 개념간의 계층구조를 일일이 제시하는 대신, 문헌의 주제를 소수의 관점(특성이나 측면)으로 분석하여 파악하고 이들 관점마다 분류기호를 부여한 다음 이를 일정한 원칙에 따라 합성하여 주제를 표현하는 방법이다. 조합식 분류체계에서는 개념을 일정한 특성에 따라 구성요소로 분석하는데 이를 페이스 분석(facet analysis)라고 한다. 다시 말해 페이스는 대상과 속성, 차원, 행위 등으로 조직화된 범주로,<sup>17)</sup> CC는 PMEST의 다섯 가지 기본적인 범주를 사용하고 있으며, BC2에서는<sup>18)</sup>

- |                |            |           |
|----------------|------------|-----------|
| • Thing/Entity | • Kind     | • Part    |
| • Property     | • Material | • Process |
| • Operation    | • Patient  | • Product |
| • By-product   | • Agent    | • Space   |
| • Time         |            |           |

를 범주로 사용하고 있다.

조합식 분류는 페이스 공식 또는 페이스 순서라고 부르는 공인된 페이스의 열거순서 또는 어떻게 페이스들이 표현되는지에 대한 규칙이 마련되어 있다. 이들 페이스 공식에서 각 범주의 열거 순서는 각 주제 분야의 구체성 또는 중요성에 따라 순위가 매겨진다. 열거순서는 구체성 증가의 원리와 같은 주제의 배열 원리에 따라 열거되어 있다.

페이스의 열거순서는 일반적으로 자료가 서가에 배열되는 순서와는 반대로 구성되어 있다. 예컨대, 문학의 열거순서는 언어, 형식, 시대의 순서로 자료는 일차적으로 언어, 다음에 형식, 다음에 시대에 따라 구분되어 배열된다. 그러므로 페이스의 열거순서는 자료들의 유집을 도와주며, 조합식 분류에서도 각 페이스와 개념을 확인할 수 있는 기호 체계를 사용하여 각 페이스를 연결하는 연결 코드나 페이스 기호들을 사용하여 각 페이스를 구별하고 있다.

또한 조합식 분류는 분류체계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매우 융통성을 가지고 있다. 대부분의 조합식 분류체계는 어떠한 페이스도 조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서 분류자에게 열거식 분류보다 자유로운 분류를 가능하게 해 준다. 예컨대, 합성주제의 경우에 개개의 주제들의 상(相關)계를 표시하는 페이스기호(문자 또는 숫자)를 사용하여 주제와 주제간의 관계를 명확하게 기호로 표시해 준다.

17) 상계서.

18) Vanda Broughton. "Faceted classification as a basis for knowledge organization in a digital environment : the Bliss Bibliographic Classification as a model for vocabulary management and the creation of multidimensional knowledge structure." *The New Review of Hypermedia and Multimedia* 2001, p.79 In William Denton. "How to Make a Faceted Classification and Put It On the Web" Nov. 2003. <<http://www.miskatonic.org/library/facet-web-howto.html>> [Cited 2005-10-21].

이와 같이 조합식 분류는 새로운 주제에 대해서는 현재 나열되어 있는 표에 새로운 주제를 추가하는 대신에 새로운 방식으로 패킷안에 있는 개념들의 조합에 새로운 방식을 가미하여 쉽게 적응하고 있다. 만약 조합식 분류가 완전하게 고안되었다면 인간의 능력 범위 안에서 어떠한 주제에 대해서도 표현할 수가 있다.

그러나 조합식 분류체계를 위해 마련된 분류기호는 패킷들을 합성하는 방법과 패킷(연결)기호를 사용하기 때문에 비교적 복잡하다. 따라서 사용자들은 특수한 기호들을 기억하는 것이 어렵고 또한 그들을 사용하여 자료를 물리적으로 배열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며, 조합식 분류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많은 훈련이 필요하며 분류체계들이 가지고 있는 원리와 사용법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다.

### 3. 십진식 분류체계가 채택하고 있는 조합 방법

DDC는 초판부터 주제 간의 결합 구조를 도입하였는데, 특히 여러 주제 아래 동일한 표현형식(form of presentation)을 열거하는 것은 구조적인 약점으로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서지형식, 시대, 장소 등의 형식구분(form divisions)을 마련하여, 어느 주제와도 조합할 수 있도록 하였고,<sup>19)</sup> 17판(1965)에서는 지리구분<sup>20)</sup> 18판에서는 다섯 개의 보조표<sup>21)</sup>를 추가하고(22판에서는 인물보조표를 축소)<sup>22)</sup> 또한 본표 안에서 여러 가지 합성지시에 의한 조합 기법을 사용하여 조합식 구조 요소를 수용하게 되었다.

DDC 편집정책위원회에서 밝히고 있듯이 21판부터 적극적으로 패킷화(faceting)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여서 21판의 본표에 나타나는 것의 모든 분류기호는 하나 이상의 보조표에서 따온 기호나 본표의 다른 부분에서 따온 본표 자체의 일부 기호를 추가시켜 더욱 확장 전개시킬 수 있다.<sup>23)</sup>

이와 같이 DDC가 조합식의 구조로 변화하는 조합 방법을 표준구분표(Table 1)을 사용하는 방법, 표준구분표 이외의 보조표(Table 2-Table 6)를 사용하는 방법, 본표의 다른 부분으로부터의 조합, 본표내의 각 항목에 나타나는 부가표(add table)로부터의 합성 등 4가지로 설명하고 있다.<sup>24)</sup>

본표내의 각 항목에 나타나는 부가표(add table)로부터의 합성은 특정 주제분야에 대해 별도의

19) Arlene G. Taylor, op.cit., p.320.

20) Melvil Dewey, *Dewey Decimal Classification and Relative Index*, 17th ed.(Lake Placid, N.Y. : Forest Press,1965). 2 vols. pp.22-23.

21) Melvil Dewey, *Dewey Decimal Classification and Relative Index*, 18th ed.(Lake Placid, N.Y. : Forest Press, 1971) Vol. 1, pp.375-439.

22) Melvil Dewey, *Dewey Decimal Classification and Relative Index*, 22th ed. Edited by Joan S. Mitchell, Julian Beall, Winton E. Matthews, Jr, and Gregory R. New. (Lake Placid, N.Y. : Forest Press, 2003). v.1.

23) 오동근, 배영환, 여지숙 공저, 전계서, p.91.

24) Melvil Dewey, *Dewey Decimal Classification and Relative Index*, 22th ed, v.1. pp.lii-lvi.

부가표(Add tables)을 만들어 놓고 본표의 구체적인 사용지시에 따라 이를 추가하는 것으로 기존의 20판의 음악류, 21판의 생명과학분야에서 적극적으로 도입된 구조로 이는 특정 학문 분야 또는 주제 분야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세구분을 전개시켜 표로 제시하여 본표의 별표(\*)로 표시된 항목을 세분 전개할 때 합성시키는 방법이다.

그 예를 보면

616.973 \*Contact allergies 와 같이 분류표목 앞에 별표(\*)를 하고 이의 세분은 \*Add as instructed under 616.1-616.9로 연결하고 여기에는

> 616.1-616.9 Specific diseases

Except for modification shown under specific entries, add to each subdivision identified by \* as follows: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조합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sup>25)</sup>

그러나 DDC는 합성주제의 표현을 위한 패시 공식이 없어 개개의 주제 아래 지시된 합성 방법을 준수해야 하므로 패시 구조가 복잡하지만, 판의 개정을 통하여 전체적인 체계가 패시 구조로 변화되는 것을 볼 수 있다. 20판의 음악류, 그리고 21판의 생명과학, 행정학 등이 그 예이며, 패시 기호를 도입하여 생명과학 전체에 일관되게 적용하고 있으나 기호의 의미가 이중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고, 기호안에서 구분 능력이 없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DDC의 패시 구조가 조합식 분류 체계의 방법을 따르는데 아직은 구분의 항목이 제한되어 있어 하위 구분지의 배열에 무리가 따르며 기호의 길이가 길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21 판에서 개정된 생명과학의 경우에는

> 571-572 General internal processes common to all organisms

Add to each subdivision identified by \* the numbers following in 571 in 571.01-571.2, e.g., the subject in animals 1, the subject in plants and microorganisms 2

와 같이 조합하도록 하여 생리학과 관련주제(571)와 생화학(572)에 전개된 기호를 세분 조합하도록 하고 있다.

예컨대 해부학(571.3)의 경우 위의 조합지시에 따라 동물해부학은 571.31(571.1 Animals에서 기호 1을 채택 조합), 식물해부학은 571.32(571.2 Plants and microorganisms에서 기호 2를 채택 조합)로 분류하도록 하고 있다.<sup>26)</sup>

그리고 음악류(780)에서도<sup>27)</sup> 음악의 일반적인 이론과 형식을 위한 세목(781.1-781.8)은 성악

25) *ibid.*, v.3, pp.82-127.

26) 생명과학의 패시구조에 대한 내용은 “정혜성, DDC의 패시구조에 대한 연구-생명과학과 문학을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과, 1998.”과 동일한 내용이 수록된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Vol. 30, No. 3(1999)를 참조하면 됨.

과 기약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패시로 사용된다.

- 781.1 음악의 기본원리
- 781.2 음악의 요소
- 781.3 작곡
- 781.4 음악의 기법
- 781.5 음악의 종류
- 781.6 음악의 전통(전통음악)
- 781.7 종교음악
- 781.8 음악의 형식

또한 행정학(351-354)의 경우에도 중앙표목 352-354 아래에 지시된 내용들이 행정학을 세분  
전개하는데 패시기호로 사용되고 있다.<sup>28)</sup>

행정학에서 사용되는 패시 기호들은 다음과 같다.<sup>29)</sup>

- 2 General consideration of public administration(352-354)
- 3 Administrative cooperation among subordinate jurisdictions(352.13-352.19)  
Contracts and procurement(352.55-352.57)  
Special forms of protection and control(354.34-354.37)  
Conservation(354.44-354.49)  
Passenger service(354.765-354.79)  
Specific groups of occupations(354.96-354.98)
- 4 Maintenance, utilization, disposal(352.55-352.57)  
Freight service(354.765-354.79)  
Specific extractive, manufacturing, construction(354.96-354.98)
- 5 Other specific occupations(354.96-354.98)

이 패시 기호들은 사용되는 주제 항목에 따라 기호 3의 경우에는 의미가 5가지로 사용되고 4의  
경우에는 3가지로 사용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생명과학에서도 같은 예를 본 경우가 있지만 DDC  
편집정책위원회에서 패시 기호를 사용하여 의미가 있는 요소를 확인하고, 통일된 기호를 사용하여  
반복되는 내용을 표현하도록 하는 것은 정보검색의 효율을 기하려는 의도이지만 실질적으로 DDC  
의 구조 형태를 패시로 보기 어렵다.

또한 DDC가 특정 개념을 공통적으로 표시하는 패시 기호를 분류표가 개정될 때 반영하고 기호

27) 음악류의 패시구조에 대한 내용은 “정혜성, “DDC 음악류의 조합식 구조에 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vol.32, no.4(2001)”을 참조하면 됨.

28) Melvil Dewey, *Dewey Decimal Classification and Relative Index*, 22th ed, v.2, pp.625-668.

29) *ibid.*



조합을 위한 합성지시의 방법을 사용하고 있으나 모든 주제를 표현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sup>30)</sup>

DDC보다 조합식에 더욱 접근한 국제십진법(Universal Decimal Classification : UDC)의 경우는 각종 합성기호를 도입하여 다양한 주제간의 관계를 표현할 수 있고, 복수의 주제를 결합할 수 있으며 특정주제에 속하는 개체를 식별할 수 있으며 (A/Z), 주제의 특수한 관점 (.00)을 표현할 수 있다.<sup>31)</sup>

### Ⅲ. KDC의 패킷 구조와 개선 방안

KDC는 열거식 구조이지만 초판부터 기호체계와 조기성 등 구조체계를 기본적으로 DDC에 기초하여 조합식의 방법을 수용하고 있다. KDC는 DDC와 같이 기본적으로 전조합 색인이기 때문에 모든 개념간의 관계는 분류기호로 제시되지만 특정 개념간의 관계를 표현하기 위해 합성기호를 다수 도입하고 있다.<sup>32)</sup> 특히 주제의 합성을 위해 많은 부분에서 조기성의 기법을 도입하고 있는데, 동일한 개념에 대해서는 동일한 기호를 부여하도록 하는 이른바 체계적 조기성(systematic mnemonics), 또는 일정적(一定的) 조기성 내지 표에 의한 조기성(scheduled mnemonics)의 기법을 주로 채택하고 있다.<sup>33)</sup>

조기표는 주제의 특성 요소를 범주화한 것으로 이를 결합하여 특정주제의 범위를 한정하는 것으로<sup>34)</sup> KDC는 이 보조표를 사용하는 경우 외에도 본표의 다른 부분에서 사용하고 있는 분류기호를 해당 분류기호에 직접 추가하도록 함으로써 조기성을 부여하는 이른바 주제구분을 사용하는 조합 구조를 볼 수 있다.

KDC 분류법 해설에서 조기성을 표준구분, 국어구분 등과 같이 형식 또는 구분이 같고 또 016.51 의학서목과 같이 주제가 같은 것 등에 대하여 공통된 번호를 배당하여 사용함으로써, 쉽게 번호와 조직을 이해하고 기억할 수 있도록 마련하였다. 이것을 조기성이라 일컬으며 이 조기성이 적용된 대표적인 것으로서는 표준구분, 지역구분, 국어구분, 언어공통구분, 문학형식구분, 종교공통구분, 전주제구분, 특수주제의 공통구분 내지 세목 등을 제시하고 있는데<sup>35)</sup> 이를 구조적 측면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30) Melvil Dewey, *Dewey Decimal Classification and Relative Index*. 21th ed. v.1. p.xx, v.4. 1057, 1114-1118.

31) Arlene G. Taylor, op.cit., p.310.

김태수, 전게서, p.179.

32) 김태수, 상게서, pp.236-241.

33) 오동근, 배영환, 여지숙, 전게서, p.36.

34) 김태수, 전게서, pp.50-151.

35) 韓國圖書館協會 分類委員會 編, 韓國十進分類法, 第4版.(서울: 韓國圖書館協會, 1996), 第1卷. 本表 pp.3-7.

### 1. 특정 패시를 본표상의 특정 류나 강에 고정시킨 구조

특정 기호에 특정한 의미를 부여하여 분류표의 조직을 단순화하고 기억하기 쉽고 이용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표에 의한 조기성은 어학의 언어구분과 총류(030-050)의 구조와 어학과 문학의 국어구분의 구조, 그리고 역사와 지리, 전기, 그리고 동양철학과 아시아의 역사에서 패시 기호를 사용하는 구조를 볼 수 있다.

어학의 언어구분 710, 720, 730, 740...의 1, 2, 3, 4... 등은 백과사전, 강연집, 수필집, 연설문집, 일반연속간행물을 전개하는 목의 1, 2, 3, 4와 동일한 패시이며, 어학과 문학의 강의 1, 2, 3, 4... 동일한 패시로 전개되고 있다.

역사와 지리, 전기에서 역사(910-970)의 강과 목의 패시는 지리(981-987), 전기(991-997)의 목과 세목의 패시로 사용된다.

910	아시아	981	아시아 지리	991	아시아(인 전기)
911	한국	981.1	한국지리	991.1	한국(인 전기)
.					
.					
.					

또한 역사(910-970)의 강과 목의 패시는 통계학의 각 지역의 일반통계(311-317), 행정학의 각 국 중앙행정과 행정부(351-357)의 목의 패시로 사용되고 있다.

그리고 아시아(역사)의 목(911-919)의 패시는 아시아(동양) 철학 사상(150)의 목의 패시로 사용되고 있다.

911	한국	151	한국철학, 사상
912	중국	152	중국철학, 사상
.			
.			
.			

### 2. 보조표의 패시를 분류표 전체에 합성하는 구조

KDC는 문헌의 특성을 다수의 보조표로 범주화하고, 이를 특정 주제와 결합하여 주제의 의미범위를 한정할 수 있는 보조표가 8가지(실제적으로는 6가지)가 마련되어 있는데 모든 주제에 필요한 경우 적용할 수 있는 보조표의 패시들은 표준구분, 지역구분(한국지역구분과 한국시대구분 포함) 그리고 국어 구분이 있다.

## 가. 표준구분표

표준구분은 서술형식이나 편집 또는 출판형식과 같은 주제의 표현형식에 따라 자료를 분류하기 위한 것으로 어떤 주제와도 합성이 가능하고 기호에는 항상 0을 포함하고 있다. 그런데 KDC는 기호의 최소단위를 3자리로 채택하여, 주류와 강 또는 목에 포함되는 0이 의미 없이 붙여진 경우가 있으므로 0의 사용규칙이 적용 된다.<sup>36)</sup> 따라서 표준구분 기호의 사용에는 일반 규칙에 대한 예외적인 적용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본표의 지시를 확인하고 표준구분의 기호를 합성하여야 한다.

본표에 표준구분의 사용 지시의 예를 보면,

- 1) 100 哲學
  - 101 理論 및 哲學의 效用
  - 102 雜著
  - 103 辭典, 事典, 用語辭典
  - ...
- 2) 329.4 租稅
  - .4001-4009 標準區分
  - 예: 租稅便覽 329.4002
  - .401-407 各國租稅
- 3) 341 國家形態
  - 341.001-341.009는 標準區分한다.
  - .01 단일국가
  - .02 복합국가
- 4) 345 立法
  - 345.001, 345.003-.008 은 標準區分한다
- 5) 600 藝術
  - 藝術에 관한 標準區分은 600.1-.9에, 美術에 관한 標準區分은 601-609에 分類한다.

그러나 일부 항목에는 표준구분의 지시가 없어 혼동을 가져오는 경우가 있다. 예컨대

- 454 海洋學
  - .02 海洋物理學
  - .03 海洋化學
  - ...
  - .1-8 各海 海洋學

36) 오동근, 배영환, 여지숙 공저, 전계서, pp.60-62.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454.03은 해양화학으로 배정되어 있으나, 이 기호를 해양학 사전으로 오인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sup>37)</sup> 일관성 있는 표준구분의 지시가 필요하다.

나. 지역구분표

주제를 특정 지역으로 한정하기 위해 지표를 대륙과 국가, 특정 지역으로 범주화한 표<sup>38)</sup>로서 910-979에 전개된 각국의 역사와 조기성을 유지하고 있다.

이 보조표의 사용방법은 본표의 해당 주제아래의 지시에 따라 합성하는 경우와 분류표에서 특별한 지시가 없어도 필요한 경우에 표준구분의 -09를 패킷기호(연결기호)로 사용하여 합성한다

- 1) 311-317            各 地域의 一般統計  
910-979와 같이 地域區分한다. 예: 한국일반통계 311.1
- 2) 027                學校 및 大學圖書館  
027.1-.9는 910-979와 같이 地域區分할 수 있다.  
예: 성균관대학교 도서관업무보고서 027.611
- 3) 322.83            經濟協力, 經濟援助  
910-979와 같이 地域區分한다. 예: 美國의 經濟援助 322.8342  
필요에 따라 0을 附加하여 受惠國과 被援助國을 910-979와 같이 地域區分할 수 있다. 예: 美國의 對日經濟援助 322.8341013
- 4) -091-097        特殊 大陸, 國家, 地方區分  
910-979와 같이 地域區分한다.

위의 예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역구분표를 사용하여 지역으로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특수주제합성의 방법으로 합성이 이루어지므로 이 보조표의 효용성이 없다고 할 수 있다.

다. 한국지역구분표

주제를 한국의 특정 지역에 한정하기 위해 마련된 표지만, 별도의 조기표가 마련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본표의 911.1-.99와 같이 구분하도록 지시하고 있기 때문에 보조표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지역구분표의 한국 부분을 확장 전개하여 사용할 필요가 있다.

韓國地域區分表

本表 911.1-99와 같이 區分한다

37) 상계서, p.66에 보면 해양학 관련 문헌목록의 경우 454(해양학) + -026(표준구분: 서지, 도서목록, 초록, 색인)은 454.026으로, 건축 관련 법령집의 경우도 540(건축공학)-0 + -023(법령 및 규정)--540.23으로 하고 있으나, 540.23은 본 표에는 건축 활동의 하위세목으로 전개하고 있다.

38) 김태수, 전계서, p.237.

#### 라. 한국시대구분표<sup>39)</sup>

어떤 주제가 한국의 특정 시기에 한정하여 다루고 있을 때 사용하는 보조표로 시대를 나타내는 기호들은 0을 수반하고 있다. 이 표는 한국지역구분표와 같이 실제 항목이 전개되어 있지 않고 본표의 911.01-.077에 제시된 항목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보조표로 보기가 어렵다.

#### 韓國時代區分表

本表 911.01-.079 와 같이 區分 한다

#### 마. 국어구분표

이 보조표는 언어류(700)내에서, 각국 언어를 표시하는 기호는 언어류 이외의 다른 주제의 각국 언어를 표시하는 데에도 동일한 기호가 적용되는 것을 의미한다.<sup>40)</sup> 특히 이 표는 KDC의 언어류(700)와 문학류(800)의 강을 나타내는 패시이며, 기호 -1-8은 지역구분표의 -11-13과 24-28의 두번째 기호와 동일한 의미로 사용된다.

그러나 이 표는 본표와 보조표 전반에 걸쳐 언어적 측면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되는데 본표 또는 보조표의 기호에 국어구분 기호를 합성하는 방법이 아니라 지역구분표와 같이 필요한 주제아래 "710-799와 같이 구분한다" 와 같이 특수주제 합성 방법으로 지시되어 있어 실질적인 표의 사용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 3. 보조표의 패시를 본표의 특정 류에만 합성시키는 구조

#### 가. 언어공통구분

이 보조표는 언어류(700)의 목에 적용되는 패시로 한국어(710)의 목에 전개된 구분을 필요에 따라 720-790의 각국 국어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패시이다.

#### 나. 문학형식구분

이 보조표는 문학류(800)에서 각국 문학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며 각국 문학의 목에 해당하는 패시로 각국 문학의 형식을 나타내는 조기성 기호다.

DDC를 비롯한 십진식 분류표의 문학의 패시구조는 문학류(8) + 언어(국어구분) + 문학형식(문학형식구분표) + 문학시대로 이루어진다. 이 구조는 문학류는 주제를 기준으로 분류하기보다 강에는 언어를 기준으로 전개하고 목의 자리는 형식(장르)에 따라 구분 전개하고 다음에 문학 시

39) 정혜성, "분류표의 시대구분에 대한 연구," 한국도서관 정보학회지, Vol.35, No.4(2004.12), pp.469-489에 KDC의 시대구분에 대한 논의가 되어 있음.

40) 김정소, 자료분류론(대구: 계명대학교 출판부, 1983), p.107.

대(literary periods)을 적용할 수 있다.

DDC는 이러한 구조가 철저하게 지켜지고 있으나, KDC는 시대 패킷을 엄격하게 준수하기 보다는 한국문학, 중국문학, 일본문학의 경우에만 <표 1>과 같이 적용되고, 840-890 각국 문학은 제 9위(목)까지만 전개하고 목이하의 경우에 대한 전개지시가 없어 문학의 패킷 구조가 철저하게 문학언어+형식+시대 패킷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또한 각국 문학의 세목(제4위)의 기호가 시대 패킷을 표현하는 것이 아닌 예가 많아 시대 패킷을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

예: 813.7 야담, 고전  
.8 동화

<표 1> 동양권 문학의 시대구분 기준

한국문학		중국문학		일본문학	
시대	패킷기호	시대	패킷기호	시대	패킷기호
삼국시대	3	고대	3	고대	3
고려시대	4	중세	4	중세	4
조선시대	5	명	5	근세	5
현대(1910-)	6	청	6	현대	6
		현대	7		

한국문학(810)은 문학 형식구분의 순서와 동일하게 전개되어 있으며 811의 예와 같이 한국시의 특성을 살릴 수 있도록 세분 전개하고 있다고 하지만<sup>41)</sup> 모든 한국문학의 세 번째 패킷인 시대구분의 의미는 배제되어 있다. 다만 현대를 의미하는 기호 6을 모든 문학형식에 사용하고 있어 현대 문학은 모두 81△.6으로 분류된다.<sup>42)</sup> 이 결과 되어 많은 량의 장서들이 집중되어 분류의 의미를 상실하고 있다. 따라서 다른 언어의 문학은 논외로 하더라도 한국문학은 현대문학에 시대 패킷을 철저하게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용방법은 “한국시대구분표”의 기호를 사용하여

813.6 현대(소설)

한국시대구분표 -71-79와 같이 구분한다. 와 같이 전개하면

조정래의 장편소설 태백산맥(1986년 발표)은 813.65로 분류할 수 있다. 즉 813.6(한국 현대소설) + 911.075(제5공화국 1981-1988)에서 마지막 기호 5를 한 것이다. 이 경우 한 작가의 작품은 처음 작품을 발표한 시기를 기준으로 하면 된다.

41) 오동근, 배영환, 여지숙 공저, 전개서, p.238.

42) 811.6 현대시, 812.6 현대희곡, 813.6 현대소설.

#### 다. 종교공통구분표

종교공통구분은 비교종교에서 211-218의 목으로 전개된 구분을 각 종교에 공통적으로 적용하는<sup>43)</sup> 패킷으로 불교(220), 기독교(230), 도교(240)은 이 패킷에 따라 전개되어 있으며, 이 패킷들은 부가지시에 따라 기타 종교들(250-280)에도 적용할 수 있다.

238 猶太教

圖書館에 따라 231-238과 같이 細分할 수 있다.

250 天道教

圖書館에 따라 211-218과 같이 細分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보조표도 직접 합성할 수 있는 지시가 없이 특수주제합성의 방법으로 합성이 이루어지고 있어 직접적인 합성지시가 필요하다.

#### 4. 분류표에 전개된 기호를 패킷으로 사용하여 합성하는 구조

분류표에 제시된 주제를 하나의 범주로 취급하고 이를 특정주제와 결합하여 주제의 의미를 한정하는 구조로 DDC의 경우와 동일하다.<sup>44)</sup> 본표와 본표를 합성하는 방법에는 전주제 합성과 특수주제 합성의 방법이 있다.

전주제 합성은 특정 주제의 합성범위를 분류표상의 모든 주제로 확장하여 의미범위를 표현하는 방법으로 그 구조를 보면,

016 主題別書目

001-999와 같이 主題區分한다. 예: 政治書目 016.34

정치서목 016.34는 주제별 서목(016) 패킷에 정치학(340) 패킷을 합성한 구조이다.

특수주제 합성은 특정 범위의 주제를 합성하여 특정 주제를 표현하는 방법으로서 합성의 범위가 특수 주제로 제한되어 있다는 점이 전주제 합성과 다르다.

특수합성 지시의 예를 보면

329.91 地方財政運營

圖書館에 따라서 329.1-.145와 같이 細分할 수 있다. 예: 地方財政監査制度 329.913

지방재정감사제도 329.913은 지방재정운영 329.91에 관청회계감사, 심계제도 329.13에서 감사제도를 나타내는 패킷 3을 합성시킨 경우이다.

43) 韓國圖書館協會 分類委員會 編, 전게서, pp.6-7.

44) 김태수, 전게서, p.239.

### 5. 특정 기호를 패싯기호로 사용하는 구조

KDC는 일부 기호를 패싯기호로 사용하고 있다. 예컨대 표준구분의 기호에서 0은 항상 표준구분을 의미하는 패싯기호이며, 앞에서 살펴 본 조기성을 나타내는 기호들은 특정 의미를 나타내는 패싯기호이다. 그러나 2가지 개념을 표현하여야하는 주제들에서 패싯기호를 사용하여 관계를 연결시켜주고 있다. 경제협력, 경제원조(322.83), 각국 이민(322.951-9579), 각국 외교(349.1-79), 국제조약(361.3) 등의 항목에서는 복수의 국가를 표현해야 하므로 다음과 같이 패싯기호 0을 사용토록 하고 있다.

#### 361.3 國際條約

910-979와 같이 地域區分한 후 0을 附加하고 相對國을 910-979와 같이 地域區分한다. 예: 韓美條約集 361.311042

위의 361.311042에서 361.3(국제조약) + 11(한국) + 0(패싯기호) + 42(미국)의 구조이다..

#### 322.951-.9579 各國 移民

受入國에 의하여 910-979와 같이 地域區分한다. 例: 오스트레일리아 移民 322.9562; 在美韓國人 322.9542

필요에 따라 0을 附加하여 移民의 出發國을 910-979와 같이 地域區分할 수 있다. 例: 在美韓國人 322.9542011

위의 322.9542011은 322.95(이민) + 42(미국) + 0(패싯기호) + 11(한국)의 구조이다.

#### 349.1-.79 各國 外交

910-979와 같이 地域區分한다. 例: 美國外交史 349.42

2개 國家의 外交關係는 0을 附加하여 對象國을 910-979와 같이 地域區分한다. 예: 韓美外交關係 349.11042

위의 349.11042는 349(외교, 국제관계) + 11(한국) + 0(패싯기호) + 42(미국)의 구조이다. 한편 행정학(350)의 강인 351-357(각국 중앙행정 및 행정부)는<sup>45)</sup>

#### 351-357 各國 中央行政 및 行政府

各國 行政府組織 및 古代官制 등을 포함한다.

910-979와 같이 地域區分하고 各國 中央行政組織 및 行政은 350.2-.8과 같이 細分한다. 예: 中國外交部 351.2231; 美國大統領 354.221; 英國 公務員制度 352.43

중국 외교부 351.2231은 35(행정부) + 12(912 중국) + 231(350.231 외무부)의 구조이고 미국 대통령 354.221은 35(행정부) + 42(942 미국) + 21(350.21 대통령)의 구조이고 영국 공무원제도

45) 韓國圖書館協會 分類委員會 編, 전게서, p.233.



352.43은 35(행정학) + 24(924 영국) + 3(350.3 공무원제도)의 구조이다. 위의 기호 231, 21, 3과 같은 기호는 행정학 범주 안에서만 사용되는 폐쇄기호로 DDC의 내부 보조표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 6. 개선방안

앞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KDC도 십진식 분류체계가 채택하고 있는 조합식의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다만 조합의 방법을 지시하는 형식이 일정하지 않고 또한 너무 간단하여 사용자가 하여금 혼란을 가져오게 하고 정확한 기호 매김 공정이 이루어 질 수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구조적인 측면에서 조합방법의 지시를 분명히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 가. 새로운 합성지시 방법 채용

현재 KDC에서 합성 지시하는 방법은 표준구분, 지역구분, 시대구분, 국어구분과 전주제 및 특수주제의 합성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예:	350	行政學	
		350.01-.08은 標準區分한다 -----	표준구분 합성지시
	329.4	조세	
		.4001-.4009 標準區分 -----	표준구분 합성지시
		.401-.407 各國 租稅	
		910-979와 같이 地域區分한다.--	지역구분 합성지시
	-0901	原始時代(1BC까지)	
		-0901 ~ -0906은 일반 시대구분에 사용한다 --	시대구분 합성지시
	-091 ~ -097	特殊 大陸, 國家, 地方區分	
		910-979와 같이 地域區分한다 -----	지역구분 합성지시
	033.91-.98	기타 아시아 諸國語 百科事典	
		739.1-.8과 같이 細分한다. -----	국어구분 합성지시
	081.1-.99	言語에 의한 一般 個人全集	
		710-799와 같이 구분한다. -----	국어구분 합성지시

이상의 예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합성지시는 있으나 어느 기호에 합성을 해야 하는지 분명한 지시가 안 되어 있어 불편하다.

그러나 398(空軍)의 경우는 398-398.5는 390-395와 같이 세분한다.<sup>46)</sup> 그리고 398.8(空中勤務)

46) 상계서, p.291.

에는 398.81-398.85는 559.34461-559.34469 와 같이 세분한다<sup>47)</sup> 로 되어 있어 분류기호를 부여하는 범위를 정해 놓은 경우도 있다.

DDC는 표준구분이 필요한 경우마다 합성 형태를 제시하고 있으며, 또한 표준구분 합성주기(standard subdivision are added notes)를 사용하여 표준구분의 방법을 분명히 지시하고 있으므로 분류자가 합성 지시에 따라 기호 조합을 할 수 있다.<sup>48)</sup>

예: 639.2 Commercial fishing, whaling, sealing

Standards subdivisions are added for Commercial fishing, whaling, sealing together, for commercial fishing alone

KDC에서도 위의 예 329.4001-.4009 와 같이 표준구분의 합성지시를 분명히 하고 있는 경우도 있으니 표준구분을 위한 합성 방법을 모든 류에 분명히 지시해줄도록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나. 조기표의 활용지시

KDC 에 마련된 조기표 중 지역구분표와 국어구분표는 합성지시가 특수주제합성 방법으로 지시되어 사용이 안 되고 있다. 따라서 이 조기표의 적극적인 활용을 위해서는 조기표의 합성 지시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 1) 311-317 各 地域의 一般統計

910-979와 같이 地域區分한다. 예: 한국일반통계 311.1

2) 027 學校 및 大學圖書館

027.1-.9는 910-979와 같이 地域區分할 수 있다.

예: 성균관대학교 도서관업무보고서 027.611

3) 322.83 經濟協力, 經濟援助

910-979와 같이 地域區分한다. 예: 美國의 經濟援助 322.8342

필요에 따라 0을 附加하여 受惠國과 被援助國을 910-979와 같이 地域區分할 수 있다. 예: 美國의 對日經濟援助 322.8341013

4) -091-097 特殊 大陸, 國家, 地方區分

910-979와 같이 地域區分한다.

예 1)의 경우 예는 “기본기호 31에 지역구분표의 기호 1~7을 사용하여 지역구분한다.”

예 2)의 경우에는 “기본기호 027에 지역구분표의 기호 1-79를 사용하여 지역구분하다.”

예 3)의 경우는 “기본기호 322.83에 지역구분표의 기호 1-79를 사용하여 지역구분한다. 필요에 따라 0을 부가한 기호에 지역구분표의 기호 1-79를 사용하여 지역구분한다”와 같이 합성지시를

47) 상계서.

48) Melvil Dewey, *Dewey Decimal Classification and Relative Index*, 22th ed, vol.1, pp.lii-liv.

하면 정확한 기호 합성이 이루어 질 수 있다. 이런 지시는 국어구분표의 사용에도 적용될 수 있다. 따라서 기호의 합성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본기호 ~에 ~구분표의 기호 ~를 사용하여 ~구분한다”와 같은 합성지시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다. 특정 류에 적용되는 조기표의 활용 지시

문학형식구분표, 언어공통구분표, 종교공통구분표는 본표의 각 류(종교, 어학, 문학)의 목에 해당하는 폐쇄기호이다. 그러나 본표에는 조기표를 사용하여 전개하라는 지시가 없이 독립적으로 세분 전개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 조기표를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사용법의 설명이나 합성 지시를 해당 류에 지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컨대 239(유태교)의 경우 “도서관에 따라 231-238과 같이 세분할 수 있다”<sup>49)</sup>로 주기되어 있고 250(천도교), 259(단국교, 대종교), 260(신도), 270(파라문교)등에는 “도서관에 따라 211-218과 같이 세분할 수 있다”와 같이 2가지 형식의 합성 방법을 볼 수 있다.<sup>50)</sup> 따라서 이 주기를 “기본기호~에 종교공통구분표의 기호 1-8을 사용하여 세분 전개한다”로 하면 일관성 있는 합성 지시가 될 수 있다.

또한 언어공통구분도 710-799에 적용할 수 있는 합성지시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합성 지시방법은

710-790      각국 국어

특정 항목에 변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 각국 국어의 기본기호에 언어공통구분표의 기호 1-8을 사용하여 세분 전개한다. 예 : 앵글로색슨어사전 749.3

마찬가지로 문학형식구분표도 810-890에 적용할 수 있는 합성지시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합성 지시방법은

810-890      각국 문학

특정 항목에 변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 각국 국어의 기본기호에 문학형식구분표의 기호 1-8을 사용하여 세분 전개한다

예 : 앵글로색슨 수필 849.4

#### 라. 조기표의 내용 확장

한국지역구분표와 한국시대구분표는 한국적인 특성을 살려 조기표로 제시하고 있으나 내용은 없이 특수주제합성방법만을 제시하여 실질적인 조기표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한다. 따라서 한국지역구분표는 지역구분표의 한국항목에 삽입 확장하여 지역구분표의 사용방법을 따르는 것이 바람직

49) 韓國圖書館協會 分類委員會 編, 전게서, p.166.

50) 상게서, pp.168-169.

하다. 한국시대구분표는 “본표 910.01-.079와 같이 구분한다”<sup>51)</sup>는 지지만 되어있고 전개는 한국 역사(911.01-079)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KDC 2판(1968)과 3판(1980)에는 기호(1부터 7까지)에 시대를 배정하여 조기표로 사용하였으나, 4판은 911.01부터 911.077까지 전개된 기호에서 1부터 77까지을 시대구분 기호로 사용한다.

또한 국어구분표, 문학형구분표, 언어공통구분표, 종교공통구분표는 한자리 기호만 제시하고 있고 하위 개념을 위한 전개는 해당 기호에 특수주제합성 방법으로 합성하도록 하고 있다.

757 독일어 독본, 해석, 회화

757.2-.5는 717과 같이 구분한다

이에 따라 독일어 독본은 757.2(717.2 독본)으로 표시된다. 따라서 조기표 전체에 걸쳐 상세한 내용의 전개가 마련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마. 특정 류에 적용하는 내부 보조표의 마련

행정학의 351-357(各國 中央行政 및 行政府)는 “910-979와 같이 地域區分하고 各國 中央行政組織 및 行政은 350.2-.8과 같이 細分한다.”에서 351-357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350.2-.8에 전개된 기호들을 내부보조표로 만들어 사용하면 실질적인 조합식 구조로 변화될 수 있겠다.

## IV. 결론

본 연구는 KDC의 조합식 구조를 분석하기 위하여 분류표에서 채택하고 있는 조합식 구조에 대한 이론적인 측면과 십진식 분류체계들이 사용하고 있는 조합식의 방법을 검토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KDC가 채택하고 있는 조합식 구조를 분석하고 조합식으로 전환하는데 필요한 방안을 마련해 보았다.

KDC는 십진식 분류체계들이 가지고 있는 조합식 구조를 수용하여 특정 폐쇄를 본표 상의 특정 류나 강에 고정시킨 구조, 보조표의 폐쇄기호를 본표 전체에 걸쳐 합성하는 구조, 보조표의 폐쇄를 본표의 특정 류에만 한정시켜 합성시키는 구조, 본표에 전개된 기호를 폐쇄기로 사용하여 합성하는 구조, 특정 기호를 폐쇄기호로 사용하는 구조를 볼 수 있다. 따라서 KDC는 조합식 분류체계라고 할 수 있으나 앞으로 개정되는 분류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반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KDC는 조합 방법을 지시하는 형식이 일정하지 않고 또한 너무 간단하여 사용자가 하여금 혼란을 가져오게 하고 정확한 기호 매김 공정이 이루어 질 수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구조적인

51) 상계서, p.25.

측면에서 조합방법의 지시를 분명히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표준구분의 적용을 분명하게 하고 보조표를 본표의 기호와 합성하는 경우에 “기본기호 ~에 ~구분표의 기호 ~를 사용하여 ~구분한다”와 같은 지시를 사용하여 특정 주제들을 세분 전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특정 류(200, 700, 800)에 적용되는 조기표의 활용방법을 포괄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조기표의 내용을 세분 전개하여 확장하고 특정 류에 적용하는 내부 보조표를 마련하여 특정 류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패킷을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연구는 앞으로 KDC가 개선되어야 할 방향만을 제시하고, 조기표의 내용을 세분 전개하는 문제나 특정 류들에 적용할 수 있는 내부 보조표에 대한 내용이 미흡하다. 이 부분에 대한 추후의 연구가 진행되어야 하겠다.

〈참고문헌은 각주로 대신함〉

K C I

к с і